

마이스 산업 강화로 지역경제 활력

전주시, 6월 30일까지 전시·회의 유치 시 지급하는 인센티브 기준 30명으로 완화

전주시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오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단체와 법인, 기관 등이 전시와 회의를 유치할 때 지급하는 인센티브 지원기준을 100명에서 30명으로 대폭 완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에 따른 다수의 이동과 집합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종전의 지원 기준으로는 행사를 유치하는 게 사실상 어려워짐에 따라 지원기준을 완화해 마이스(MICE) 산업을 강화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다.

지원 대상은 세미나와 포럼, 학술대회, 컨퍼런스, 박람회, 워크숍, 전시, 회의 등 국내·외 행사를 주최·주관하는 단체, 법인, 기관, 대행사, 여행사 등이다.

지원 조건은 도민을 제외한 30명 이상이 2일 이상 참가해야 하며, 국제행

사의 경우에는 2개국 이상, 외국인 5명 이상이 포함돼야 한다. 기존 100명 이상에서 30명 이상으로 완화된 것이다. 다만 전시 예산을 별도로 지원받거나 단순관광, 친목, 정치, 종교, 체육 행사 등 전시·회의 육성사업 방침과 무관한 행사는 이 조건에서 제외된다.

시는 행사규모와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의 심사를 거쳐 국내행사에는 최대 2,000만원까지, 국외행사는 최대 2,500만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을 원하는 기관·단체는 전주시 홈페이지(www.jonju.go.kr)에서 내려 받은 지원금 지급신청서와 참가자 등 목록 등 신청서류를 지참해 전주시청 관광산업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완산구 기린대로 213, 대우빌딩 6층)으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청 관광

산업과 관광산업팀(063-281-2809)으로 문의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마이스 인센티브 지침을 대폭 정비하는 등 제도와 기반을 정비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서울·수원·세종시 등에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고, 다양한 학회·협회·기관·단체 관계자를 초청한 마이스캠프투어를 개최하는 등 마이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마이스 산업이 매우 힘든 상황이지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유치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며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지원조건이 완화되는 만큼 지역 내 소비 등을 견인할 수 있는 행사 유치에 힘을 기울이며 지역 내 마이스업체에서도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윤상기자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전화·인터넷 병행

전주시, 인터넷 신고는 연중 24시간 운영

전주시는 공휴일과 한밤중에도 인터넷으로 신고만하면 대형폐기물을 손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방식을 전화와 인터넷으로 병행 운영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연중 24시간 쉬지 않고 운영되는 인터넷 신고를 통해 평일 낮 시간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기 어려웠던 맞벌이 부부 등 시민들이 야간이나 휴일에 배출신고부터 처리까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인터넷 배출신고 방식은 배출자가 거주지에 따라 먼저 완산·덕진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배출품목과 배출장소, 배출 예정 일자를 입력한 후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를 통해 수수료를 결제하고, 납부필증을 인쇄해 품목별로 부착하면 된다. 담당 공무원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배출되는 대형폐기물을 확인하고 휴대용 프린터를 이

용해 납부필증을 출력·부착하는 방식으로도 운영된다.

공동주택의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실이나 경비실에 신고 후 일괄적으로 인터넷에 등록하면 보다 신속한 수거가 이뤄진다.

전주시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 관계자는 "인터넷 배출신고를 활용하면 맞벌이 부부 등 평일에 대형폐기물을 처리하기 어려웠던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생활화를 통해 자원 절약은 물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품격 있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부각시킨다"고 당부했다.

/김윤상 기자

전북 출근길 곳곳서 '미끄덩'... 빙판길 사고 156건

밤 사이 전북 지역 곳곳에 내린 눈으로 일부 도로가 얼어붙으면서 출근길 교통사고가 속출해 인명 및 재산피해가 잇따랐다.

18일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도내 적설량은 고창 12.3cm, 진안 10.3cm, 익산 9.8cm, 임실 9.3cm, 순창 9.2cm, 김제 8.5cm, 정읍 8.2cm, 전주 6.2cm 등을 기록했다.

전북 모든 시·군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출근 시간대 많은 눈이 내리면서 일부 고갯길과 이면도로에서는 차량 정체가 발생했다.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총 156건의 눈길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오전 10시 32분께 완주~순천 고속도로 상행 방향 오수휴게소 인근에서 화물차와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등 4대가 추돌했다. 이 사고로 3명이 가벼운 상처를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 여파로 2개 차선이 통제되면서 해당 도로의 7km 구간까지 극심한 교통 정체가 빚어졌다.

같은날 오전 8시 27분께 군산시 임피면 보석리의 한 도로에서 트랙터가 전도돼 운전자가 다치기도 했다.

앞서 도내 모든 시·군이 출근길 및 등굣길 안전을 위해 도로 결빙 예상 구간을 대상으로 반색 제설작업을 벌였으나 아침까지 이어진 폭설로 도로가 '퐁퐁' 얼어 붙으면서 거북이 주행

이 이어졌다.

하지만 치우는 양보다 눈이 더 내리면서 이날 오전 출근 시간대 지역 곳곳에서 교통 혼잡이 발생했다.

직장인 오모(57)씨는 "전날 눈이 내린다는 예보에 평소보다 서둘러서 나왔다"면서 "처음 폭설이 내렸을 때보다 비교적 도로 상태는 나쁘지 않았는데 눈이 계속해서 내리는 바람에 일부 구간은 미끄러워서 혼났다"고 말했다.

도는 이날 새벽부터 정비 290대와 인력 437명, 제설제 1,442을 동원해 455개 노선에 대한 제설 작업에 나섰다.

전북도 관계자는 "모든 시·군에서 교통안전에 위해 제설 작업을 벌였다"면서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는 한편 비닐하우스 등 농가 시설물 피해가 없도록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시스

전주시의회 37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

18일 전주시의회는 제3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전반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오토바이 난폭운전, 소음공해, 적극대응을"

▲서윤근 의원(우야1·2동, 호성동)은 전주시내 오토바이 소음공해에 대한 전주시의 적극대응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오토바이 난폭운전과 불법 주행 그리고 소음피해를 호소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관할 경찰서와 교통안전공단과의 협업을 통한 합동단속 등 전주시의 적극행정을 주문했다.

"효자공원묘지, 시민 친화공간으로 조성하자"

▲양영환 의원(평화 1·2동·동서학동·서서학동)은 "협오시설인 효자공원묘지가 서부신시가지 개발과 도시확장으로 시민들의 주거 및 생활시설과 근접해있다"며 "이전이면 시민들에게 친근감 있는 공간으로 조성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양 의원은 "유유공간에 체육시설, 소규모공연장, 테마별 소공원 등을 조성해 시민들이 찾고 싶은 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수돗물을 공급해야 한다"며 전주시의 노후 급수설비 개량지원사업의 전반적인 개선을 적극적으로 촉구했다.

"인권담당관, 분야별 전문 인력 충원 필요"

▲이남숙 의원(동서학동, 서서학동, 평화1·2동)은 현재 인권담당관실 인력이 1인의 담당관을 중심으로 인권정책팀 3명과 인권 옹호팀 3명에 불과해, 다양한 약자층에 대한 상시적 인권상담 및 조사업무 등 인권침해 옹호 활동을 감당할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특히 장애인 인권센터는 전문인력 실정이라며, 각 영역별 전담 인권옹호관 등의 분야별 전문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후 급수설비 개량 지원사업 개선 촉구"

▲채영병 의원(효자4·5동)은 "전주시민이 맑은 물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해야 한다"며 전주시의 노후 급수설비 개량지원사업의 전반적인 개선을 적극적으로 촉구했다.

채 의원은 전주시가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에 따라 노후 급수설비에 대한 개량공사 비용을 보조해주는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집행률이 5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적극적인 홍보, 적극적인 행정지원, 지원수준 70% 확대 등을 제안했다.

"대부업체 전수 조사하라"

▲허옥희 의원(비례대표)은 현재 전주시 100여 개의 대부업체가 등록되어 있고 이 중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대부업체는 10여 곳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5월 중앙시장과 모래내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대부사기 사건 발생 시 관계기관이 지도·점검을 하지 않아 2달 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전라북도

와 전주시의 지도·감독 소홀을 지적했다.

허 의원은 향후 비슷한 대부사기 방지를 위해 대부업체 전수 조사와 정기적인 지도점검 매뉴얼 작성을 전주시에 주문했다.

/김윤상기자

전주 곳곳서 이동형 갤러리 '꽃심' 열린다

시, 19일 전주역 앞 첫마중길 광장 시작으로 11월까지 오거리광장 등서 운영

시민과 여행객이 쉽고 편하게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이동형 갤러리가 전주 곳곳에서 열린다.

전주시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의 예술 작가들에게 활기를 불어넣고 시민들이 일상에서 예술작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21 이동형 갤러리 '꽃심''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길이 7m, 폭 3m, 높이 2.7m의 이동형 갤러리 '꽃심'은 오는 19일 전주역 앞 첫마중길 광장을 시작으로 11월까지 오거리광장 등 곳곳에서 열릴 예정이다. 단, 7~8월 휴식기 4주간은 운영되지 않는다. 이동형 갤러리에서는 사전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지역 시각예술 작가 20명이 참여해 2주마다 특색 있는 작품을 선보이게 된다.

시는 작품의 이송과 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 소정의 운영수당을 지급하고, 12월에는 참여 작가들 합동전시회도 열기로 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12일 올해 이동형 갤러리 '꽃심'에 참여하는 작가들과 간담회를 갖고 전반적인 운영방향을 설명하고 작가별 전시기간을 확정했다. 전시일정과 장소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문화정책과(063-281-268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는 전주시의 문화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붕 없는 미술관인 이동형 갤러리 '꽃심'과 버스킹 등 지붕 없는 공연장, 예술 있는 승강장 등 지붕 없는 문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서배원 전주시 문화정책과장은 "이동형 갤러리 '꽃심'은 시민과 관광객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해 문화예술도시 전주의 위상을 한층 높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작품 활동에 매진하는 작가들에게 다양한 활동 기회를 제공해 힘을 실어 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7)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